

2015년 3월기 결산보충설명자료

2015년 5월 14일

J트러스트 주식회사

2015년 3월기

■당사 그룹의 주요 사업 현황

M&A

(해외)

> 동남아시아 지역 M&A

• 2014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가 99.996%를 소유하는 상업은행 **무티아라은행(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주식 99.0%를 취득하여 연결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 앞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당사 그룹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경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① 인도네시아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현지 중소기업 및 급여소득자층을 중심으로 이들 고객에게 각종 대출(주택대출 포함), 카드 서비스, 외국환업무 등을 비롯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② 아시아 지역의 당사 그룹·협력사와 그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금융, 부동산, 어뮤즈먼트 분야에서 각자의 기업이 가진 강점을 집결하여 한층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아시아 규모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2015년 3월에 J트러스트 아시아를 통해 **타이증권거래소1부 상장기업 Group Lease PCL(타이 왕국)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향후 무티아라은행을 통한 파이낸스 제공,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금융사업 공동전개, 당사 그룹의 동남아시아 지역 사업 전개 시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각 사의 사업시너지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 지역 M&A

•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주)로부터 **2015년 1월에 (주)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의 주식 전량을, 2015년 3월에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캐피탈(주)의 주식 전량을 취득하여 연결자회사로 편입**하고 상호를 각각 “JT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JT저축은행”이라 한다), JT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JT캐피탈”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 상세사항은 Topics(P.3)를 참조하십시오

(일본)

• 2014년 11월에는 **어도어즈가 (주)일본개호복지그룹의 주식 전량을 취득**하여 당사 그룹은 새롭게 **개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주)일본개호복지그룹이 기존에 구축한 개호·복지 노하우 및 이용자·이용자 가족·지역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행정수요에도 부합하는 개호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호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

(해외)

> 2014년 8월 한국자회사 간 사업양도를 실시하여 하이캐피탈대부, 케이아이제이대부금융(현 TA자산관리대부),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의 대부사업을 친애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사업 양도 후에는 **친애저축은행에 대출업무를 집약하고 한국소비자금융회사 3사는 부실채권 매입 및 회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 그 결과 ① 사업운영 자금원이 고금리 차입금(한국소비자금융 3사)에서 저금리 예금(친애저축은행)으로 변경되어 수익구조가 개선됩니다.
② 한국소비자금융 3사의 고객기반 활용을 통해 채권잔액이 증대되고 규모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고객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등 고객의 니즈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본)

> 2015년 1월 **KC카드주식회사의 “KC카드” 브랜드를 양도**하고 동사의 상호를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NUCS의 일부 사업을 승계하는 등 당사그룹의 **신용카드사업을 새로운 체제로 재구축**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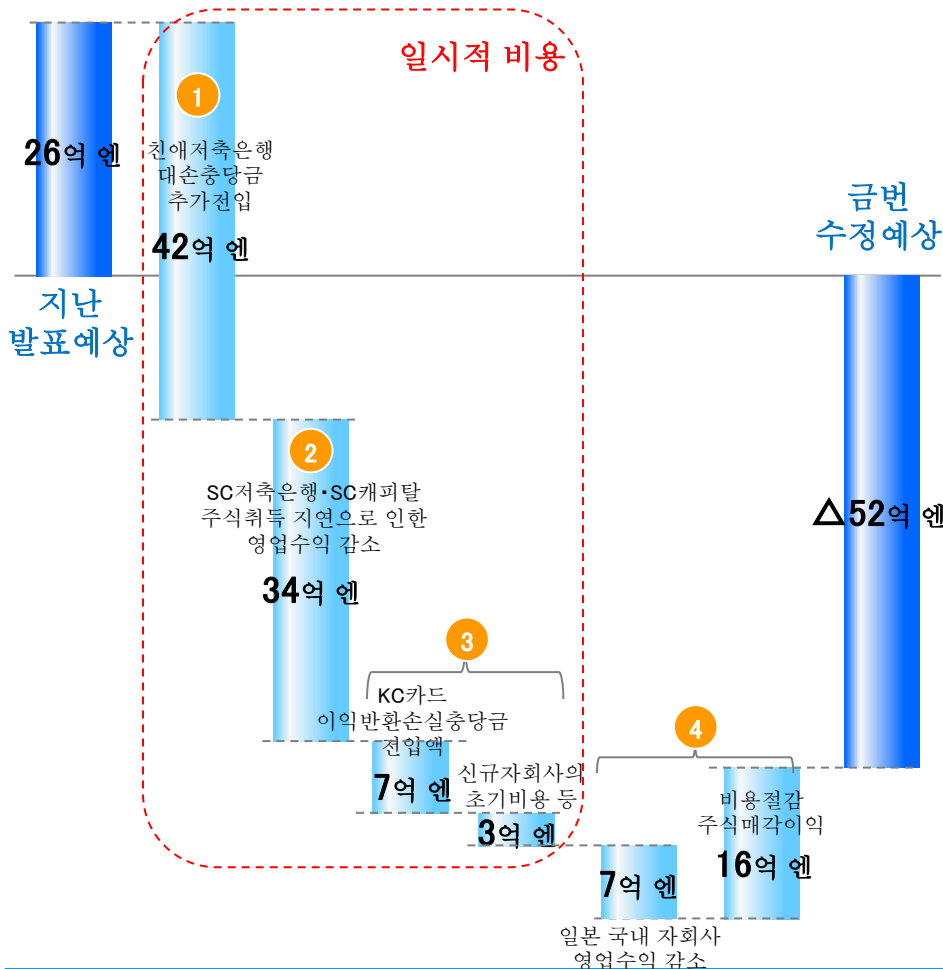
기타 (소송)

> 2015년 1월 21일에 **A&P파이낸셜대부(주)(이하 “A&P”라 한다) 및 동사 대표이사 최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들을 합하여 이하 “본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한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주)다케후지(현 법정관리회사 TFK(주), 이하 “다케후지”라 한다)의 스폰서 선정 과정 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A&P 및 최윤 씨가 당사 및 당사 임원과 다케후지 관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도쿄지방법원은 당사가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건 소송에 관한 당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한국천애저축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처리, SC저축은행·SC캐피탈의 주식취득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일시적 비용, 예상 영업수익의 감소 등이 발생
- 본격적인 사업확대를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2016년 3월기 이후에는 성장이 더욱 가속될 것

연결영업이익의 차이 (지난 예상vs.금번 수정예상)



1

향후의 근본적인 확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처리를 촉진

- 천애저축은행 대한 SC캐피탈의 자산양도에 따른 일시적 대손충당금 전입
- 연체채권·개인회생채권 등에 대해 더 보수적으로 충당률을 채택 (부실로 인한 매각 시에도 매각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

2

SC저축은행·SC캐피탈의 주식취득 지연으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 16/3기부터 이익에 기여

- 9월말 예정이던 취득시기가 2015년 3월, 1월로 늦어진 결과 15/3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익이 16/3기 이후로 이월됨

3

KC카드 매각/신규 자회사 연결 등으로 인한 일시적 비용

- 약 7억 엔의 이자반환손실충당금 적립 실시. 단, 당해 금액은 인수가격에 반영된 특별이익으로 계상
- 15/3기 3개 자회사 신규연결처리에 따른 비용 증가
- 한국 하이캐피탈의 자산양도·개편에 따른 개편비용 발생

4

일본 국내 자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비용절감

- 키노트·어도어즈의 영업수익 감소, 영업원가 증가 등으로 인한 이익저하
- 매출증가를 위해 힘쓰면서 적극적인 비용절감을 실시하여 확실하게 이익을 창출
- LCD글로벌 등의 주식매각 등의 기여로 J트러스트 아시아의 이익 약 6억 엔 증가

- 한국 내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정비됨
- 향후에는 ①각 사업체의 유기적 전개를 통한 시너지효과 ②아시아지역의 다른 거점과의 네트효과를 한층 더 강화하여 그룹전체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

한국 사업의 구조

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은 저금리 예금을 사업 자금원으로 삼아 적극적인 신규대출을 실시
TA 자산관리대부, 네오라인크레디트는 채권회수, 부실채권매입에 특화



저축은행업

NPL매입회수사업



(구, 스탠다드 차타드 캐피탈)



(구, 스탠다드 저축은행 캐피탈)

저금리예금이 사업자금원

신규대출

대출채권 매입



채권회수

부실채권 매입

한국 상위 3위
저축은행으로

한국 상위 3위 저축은행으로

친애저축+JT저축은행 → 자산규모로 3위, 점포수로 2위

※2014년 12월말 기준, 단위: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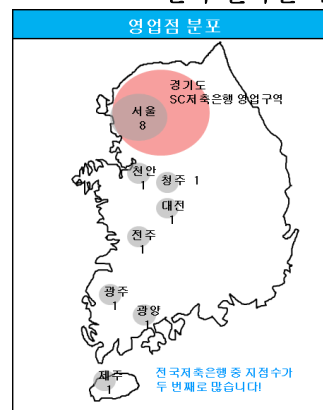
| 저축은행 | 총자산 | 예금 | 대출금 | 점포수 |
|-----------------|--------|--------|--------|-----|
| SBI저축은행(4행 합산)※ | 38,173 | 32,959 | 30,488 | 20 |
| HK저축은행 | 19,973 | 17,386 | 19,469 | 19 |
| 친애저축은행+JT저축은행 | 14,791 | 13,178 | 9,776 | 19 |
| 한국투자저축은행 | 14,269 | 11,186 | 13,384 | 12 |
| 모아저축은행 | 13,925 | 12,680 | 11,488 | 6 |
| 친애저축은행 | 11,422 | 10,453 | 7,195 | 15 |
| 동부저축은행 | 10,963 | 8,670 | 6,652 | 9 |
| 하나저축은행 | 10,729 | 8,859 | 8,832 | 11 |
| 신안상호저축은행 | 9,238 | 8,254 | 8,199 | 1 |
| 푸른상호저축은행 | 9,138 | 7,010 | 7,657 | 5 |
| JT저축은행 | 3,369 | 2,725 | 2,581 | 4 |

No.3

출처: 한국저축은행중앙회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가 작성

합병 후 영업구역은 전국의 70%

⇒ 한국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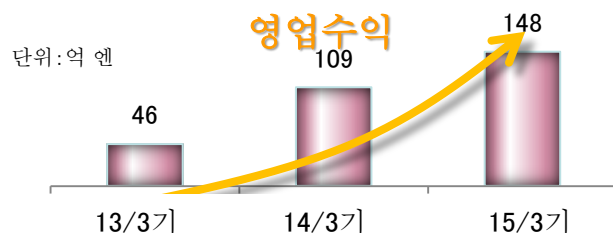
- 대출 및 예금 증가
- 광고선전 효과 확대
- 인지도 향상
- 한국 전역의 유능한 인재 획득 가능
- 당사 그룹의 채권관리·회수 노하우 활용을 통한 JT저축은행 보유 채권의 수익확대

국제적인 금융기관(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자회사를 취득

⇒ 글로벌 기업운영 노하우 및 글로벌 인재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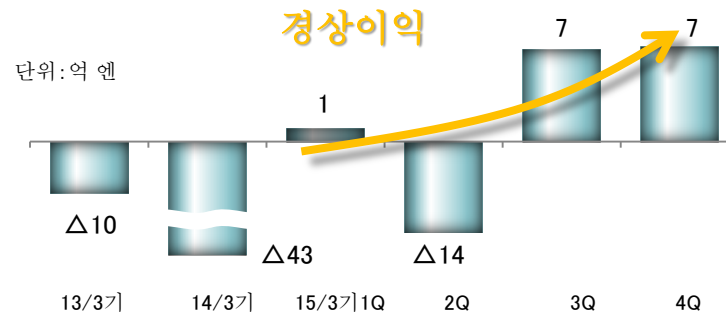
영업수익(한국기준) 추이 (기간전체 1원=0.1엔으로 환산)

- 채권매입, 계열금융회사 3사의 대출사업양수, 광고선전효과 등으로 인한 신규대출액 증가 등 대출금잔액은 순조롭게 증가
- 나아가 앞으로는 대손율이 낮은 신규대출채권 비율을 확대
⇒ 채권내용의 개선, 안정된 영업수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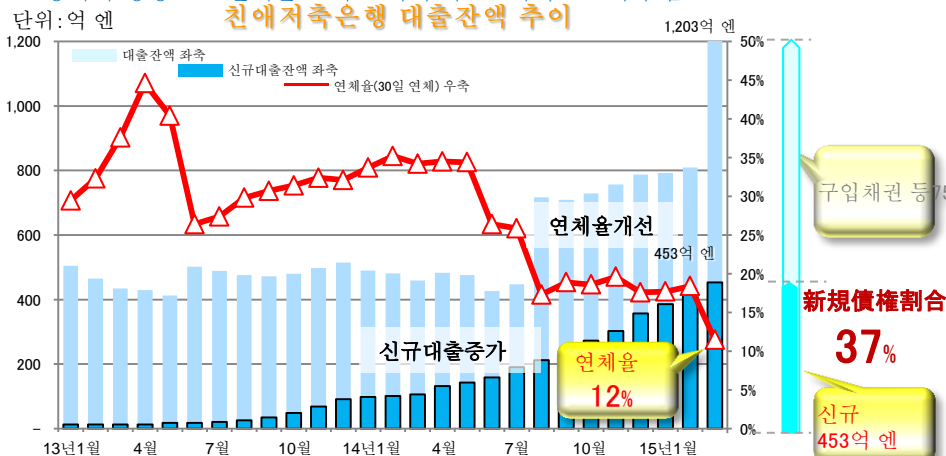
경상이익(한국기준) 추이 (기간전체 1원=0.1엔으로 환산)

- 15/3기 3분기 이후 분기결산 흑자 계상
- 대손충당금 및 채권매각손실 등 비용 선행에 따른 경상적자
⇒ 순조로운 영업수익 성장을 배경으로 향후 경상흑자전환



신규대출 비율증가에 따른 채권구성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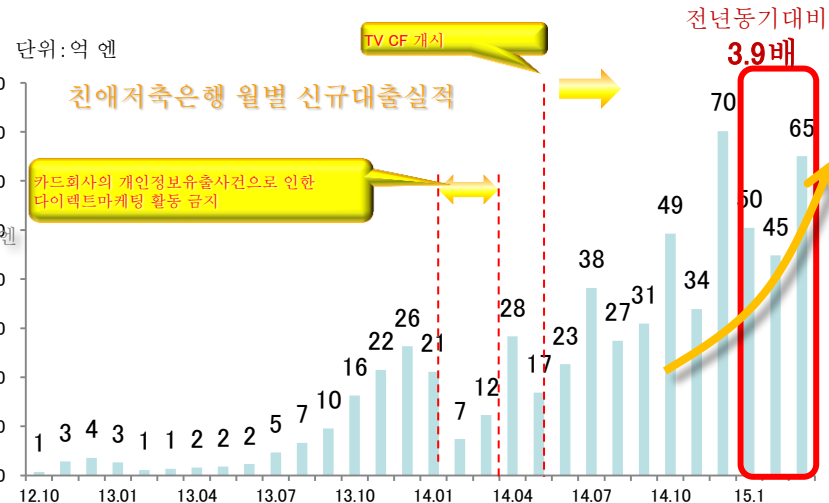
- 신규대출로 인해 대손비율이 지극히 낮은 우량고객비율이 일시적으로 전체의 약 50%까지 증가
- 대출잔액은 순조롭게 증가하여 개업 2년만에 3배 규모로 증가
- 상기의 영향으로 연체율은 피크 시에 약 50%에서 12% 대폭 감소



※환율은 매월 월말시점의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신규융자액의 계속적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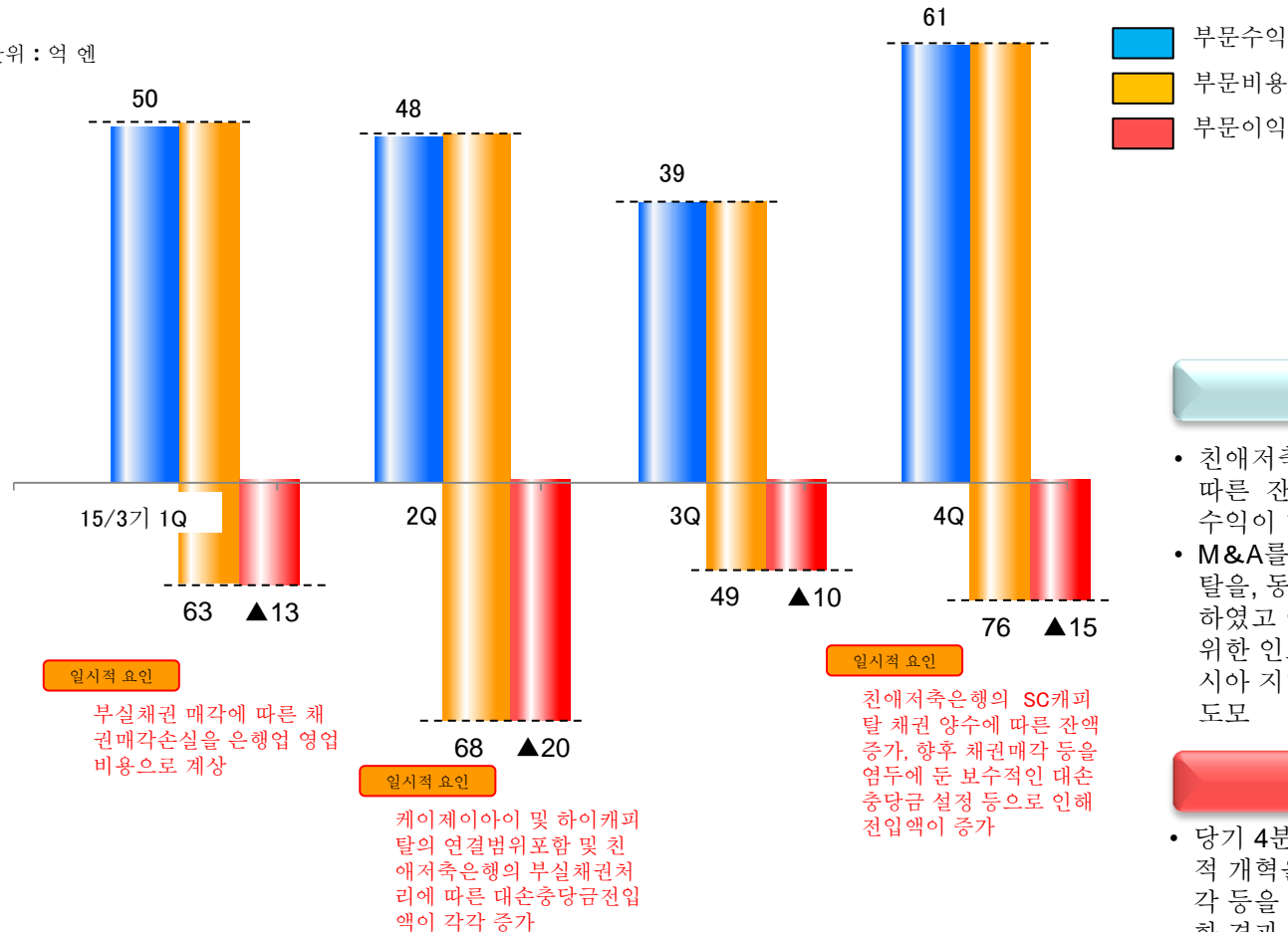
-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급증
- 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3.9배, 15/3기는 전기대비 3.6배 신규대출액



※환율은 매월 월말시점의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해외사업 수익개선 사업별 내역은 P21 참조

단위 : 억 엔



부문수익

- 친애저축은행의 채권양수 및 신규대출 증가에 따른 잔액 증가로 영업수익이 증가하여 4분기 수익이 대폭 증가함
- M&A를 통해 한국에서는 JT저축은행, JT캐피탈을, 동남아시아에서는 무티아라 은행을 취득하였고 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완료. 향후에는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익개선을 도모

부문이익

- 당기 4분기는 M&A 및 사업개편을 활용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고 일시적인 요인으로 채권매각 등을 비롯한 부실채권처리 관련비용을 계상한 결과 적자폭이 증가
- 이미 수익개선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경상흑자가 예상됨

2015년 3월기 연결결산 개요

2015년 3월기 연결결산 개요

■ 연결 실적(누계) 전기 대비

단위:백만 엔

| | 2014년3월(누계) | | 2015년3월(누계) | | 전기대비 증감 | 증감률 (%) | 주요 증감요인 |
|-------|-------------|------------|-------------|------------|------------|------------|---|
| | 실적 | 백분율 (%) | 실적 | 백분율 (%) | | | |
| 영업수익 | 61,926 | 100.0 | 63,281 | 100.0 | 1,355 | 2.2 | <div>증</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애저축은행의 계열금융회사 3사 대출사업 양수와 신규대출채권 증가로 인해 은행업 영업수익이 증가한 한편 금융회사 3사의 대출사업 양도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전기 말에 취득한 케이제이아이 및 하이캐피탈을 기초부터 연결대상에 포함한 결과 대출금이자 증가 ·J트러스트 아시아의 LCD Global Investments LTD. 유가증권 매각이익 및 당기부터 신규로 연결처리한 일본개호복지그룹, 아이전자 등의 사업수익이 가산되는 등의 요인으로 기타 영업수익 증가 |
| 영업비용 | 26,339 | 42.5 | 29,285 | 46.3 | 2,946 | 11.2 | <div>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KC카드의 “KC카드” 브랜드 양도 등으로 인해 할부결제금 잔액이 감소하여 할부결제수수료가 감소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개인소비위축의 영향 등으로 이뮤즈먼트(AM)사업 매출액 감소 |
| 영업총이익 | 35,586 | 57.5 | 33,996 | 53.7 | ▲ 1,590 | ▲ 4.5 | <div>증</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친애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매각손계상 등의 요인으로 은행업 영업비용 증가 ·당기부터 신규로 연결처리한 일본개호복지그룹, 아이전자 등의 매출원가가 가산되는 등의 요인으로 기타영업비용 증가 |
| 판매관리비 | 21,841 | 35.3 | 39,214 | 62.0 | 17,372 | 79.5 | <div>증</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 요인으로는 케이제이아이 및 하이캐피탈의 자회사 편입, 친애저축은행의 채권양수 등에 따른 잔액증가와 부실채권처리 촉진에 따른 대손충당금전입액이 각각 증가하였고 특별 요인으로는 채무보증손실충당금전입액이 전기(주정리회수기구에 대한 차입금 등의 완제에 따른 환입 있음)에 비해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대손관계비 증가 |
| 영업이익 | 13,745 | 22.2 | ▲ 5,217 | ▲ 8.2 | ▲ 18,963 | — | |
| 경상이익 | 13,351 | 21.6 | ▲ 2,385 | ▲ 3.8 | ▲ 15,736 | — | <div>증</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의 주식교부비가 전기(신주발행에 관한 비용을 계상)에 비해 감소(당기에는 없음)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환차익계상 |
| 당기순이익 | 11,145 | 18.0 | 10,143 | 16.0 | ▲ 1,002 | ▲ 9.0 | <div>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이익 감소 |
| | | | | | | | <div>증</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JT캐피탈, JT저축은행 등의 취득에 따른 부의 영업권 발생 이익의 증가 |
| | | | | | | | <div>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이익 감소 ·법인세 등의 세부담 증가 |

2015년 3월기 연결결산 개요

■ 사업부문별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연결·누계) 전기 대비

단위: 백만 엔

| | | 2014년3월 (누계) | 2015년3월 (누계) | 전기대비 증감 | 증감률 (%) | 주요 증감요인 |
|---------------|------|-----------------|-----------------|------------|------------|--|
| 일본 국내 금융사업 | 영업수익 | 25,300 | 18,790 | ▲ 6,510 | ▲ 25.7 | 할부결제금 및 국내 영업대출금잔액 감소에 따른 <u>할부결제수수료</u> 및 <u>대출금이자 감소</u> 등으로 인해 감소 |
| | 영업이익 | 11,435 | 1,852 | ▲ 9,583 | ▲ 83.8 | 영업수익이 감소하였고 특별요인으로 <u>채무보충손실충당금전입액</u> 전기(주)정리회수기구에 대한 차입금 등의 완제에 따른 환입 있음)에 비해 <u>증가</u> 하는 등의 요인으로 <u>대손관계비가 증가</u> 하여 감소 |
| 부동산사업 | 영업수익 | 4,975 | 5,822 | 847 | 17.0 | 침체된 시장 속에서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한 한편, 소비세 인상 전의 가수요집중으로 인해 일부 물건의 완공인도가 2개 연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으로 인해 영업수익은 호조세를 보이며 추이 |
| | 영업이익 | 496 | 402 | ▲ 94 | ▲ 18.9 | |
| 어뮤즈먼트사업 | 영업수익 | 16,597 | 15,087 | ▲ 1,510 | ▲ 9.1 | 관측·브랜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고객단가 및 집객수 확보에는 성공하였으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개인소비위축의 영향을 상쇄하는 수준에 달하지는 못해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 |
| | 영업이익 | 951 | 483 | ▲ 468 | ▲ 49.2 | |
| 해외사업 | 영업수익 | 13,214 | 19,857 | 6,643 | 50.3 | 친애저축은행의 계열금융회사 3사의 대출사업 양수와 신규대출채권 증가로 인해 <u>은행업 영업수익이 증가</u> 한 한편, 금융회사 3사의 대출사업 양도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전기 말에 취득한 케이제이아이 및 하이캐피탈을 기초부터 연결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u>대출금이자</u> 가 <u>증가</u> 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한 증가 |
| | 영업이익 | 3,046 | ▲ 5,811 | ▲ 8,857 | — | 일시적 요인으로 케이제이아이 및 하이캐피탈의 연결자회사 편입, 친애저축은행의 채권양수 등으로 인한 잔액증가와 부실채권처리 촉진에 따른 <u>대손충당금전입액</u> 이 각각 <u>증가</u> 하였고 동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에 따라 <u>채권매각손</u> 을 은행업 영업비용으로 <u>계상</u> 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감소 |
| 기타사업 | 영업수익 | 3,072 | 4,561 | 1,488 | 48.4 | 당기부터 신규로 연결처리한 일본개호복지그룹, 아이전자 등의 사업수익이 가산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영업수익은 증가 |
| | 영업이익 | 70 | ▲ 69 | ▲ 139 | — | |
| 합계 | 영업수익 | 63,160 | 64,119 | 958 | 1.5 | |
| | 영업이익 | 16,000 | ▲ 3,142 | ▲ 19,142 | — | |
| 소거 또는 전사 | 영업수익 | ▲ 1,234 | ▲ 837 | 396 | — | |
| | 영업이익 | ▲ 2,255 | ▲ 2,075 | 179 | — | |
| 연결 | 영업수익 | 61,926 | 63,281 | 1,355 | 2.2 | |
| | 영업이익 | 13,745 | ▲ 5,217 | ▲ 18,963 | — | |

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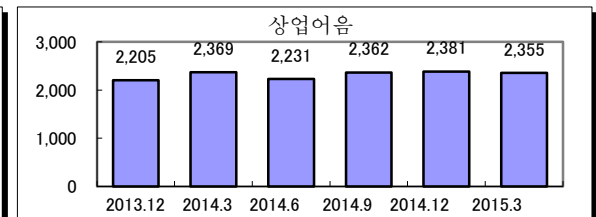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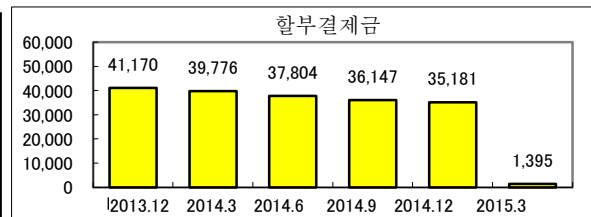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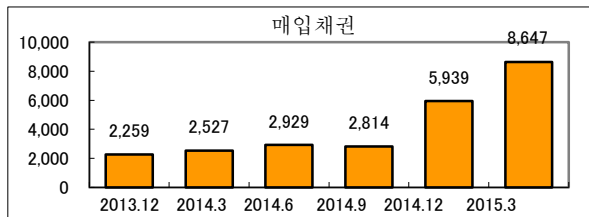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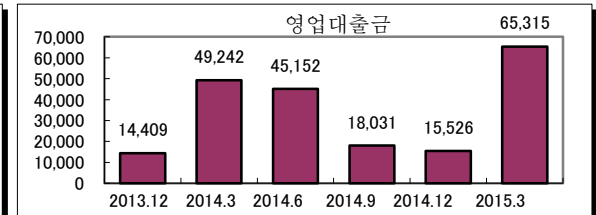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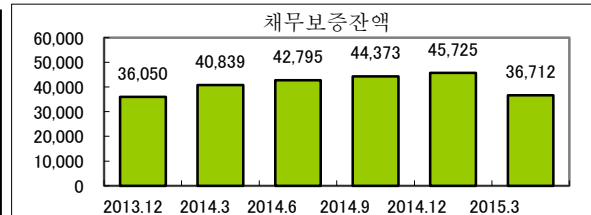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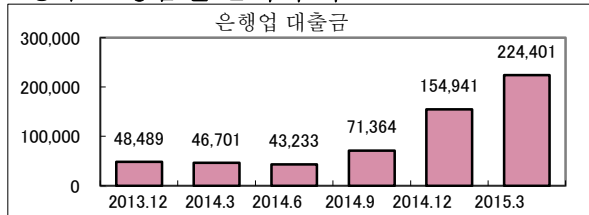
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 상품별 잔액

단위:백만 엔

| | 2013.6 | 2013.9 | 2013.12 | 2014.3 | 2014.6 | 2014.9 | 2014.12 | 2015.3 |
|------------------|--------|--------|---------|--------|--------|--------|---------|---------|
| 상업어음 | 1,429 | 1,684 | 2,205 | 2,369 | 2,231 | 2,362 | 2,381 | 2,355 |
| 영업대출금 | 16,861 | 15,267 | 14,409 | 49,242 | 45,152 | 18,031 | 15,526 | 65,315 |
| 은행업 대출금 | 59,969 | 51,698 | 48,489 | 46,701 | 43,233 | 71,364 | 154,941 | 224,401 |
| 한국(친애, JT저축은행) | 59,969 | 51,698 | 48,489 | 46,701 | 43,233 | 71,364 | 78,857 | 148,701 |
| 인도네시아(Mutiara은행) | — | — | — | — | — | — | 76,083 | 75,699 |
| 할부결제금 | 45,544 | 42,905 | 41,170 | 39,776 | 37,804 | 36,147 | 35,181 | 1,395 |
| 매입채권 | 2,454 | 2,239 | 2,259 | 2,527 | 2,929 | 2,814 | 5,939 | 8,647 |
| 채무보증잔액 | 33,983 | 34,814 | 36,050 | 40,839 | 42,795 | 44,373 | 45,725 | 36,712 |

◎ 주요 상품별 잔액 추이



코멘트

- ① 은행업 대출금은 친애저축은행의 한국 계열금융회사 3사 대출사업 양수, JT캐피탈 채권양수, TV CF를 비롯한 적극적인 광고전개 등을 통한 신규대출채권 증가, JT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 등으로 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무티아라은행의 자회사 편입으로 잔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② 채무보증잔액은 KC카드 신용보증사업 양도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지역금융기관과 보증업무제휴를 맺는 한편 임대주택대출보증업무 등 새로운 구조의 보증업무제휴를 실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무보증잔액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 ③ 영업대출금은 2014.3 한국 케이제이아이 및 하이캐피탈의 자회사편입으로 인해 증가하였으나 2014.8 네오라인크레디트를 비롯한 3사의 대출사업을 친애저축은행에 양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2015.3말 JT캐피탈의 자회사편입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 ④ 매입채권은 2014.8 한국 금융회사 3사에 대해 채권매입 및 회수 전문화 체제를 정비하고 자회사 간 NPL채권 매입 등을 실시한 결과, 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⑤ 할부결제금은 현금서비스 잔액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어 잔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KC카드의 카드사업 양도로 인해 잔액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⑥ 상업어음은 거래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한도 확대 등을 배경으로 매진한 결과 잔액은 보합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 대손충당금 등

단위:백만 엔

| ◎대손충당금 | 2013.6 | 2013.9 | 2013.12 | 2014.3 | 2014.6 | 2014.9 | 2014.12 | 2015.3 |
|------------------------|--------|--------|---------|--------|--------|--------|---------|--------|
| 부실채권잔액 (a) | 17,679 | 18,471 | 18,410 | 27,413 | 24,089 | 24,292 | 22,737 | 49,258 |
| 대손충당금(b) | 10,838 | 9,996 | 11,422 | 11,684 | 10,814 | 12,510 | 12,199 | 21,632 |
| 부실채권잔액에 대한 충당률 (b)/(a) | 61.3% | 54.1% | 62.0% | 42.6% | 44.9% | 51.5% | 53.7% | 43.9% |
| 할부결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 5,085 | 4,292 | 3,537 | 3,005 | 2,781 | 2,588 | 2,566 | 26 |
| 기타 대손충당금 | 934 | 885 | 1,406 | 1,465 | 1,355 | 1,348 | 1,435 | 1,375 |

※ 담보 및 보증이 설정된 채권은 채권금액에서 담보처분 예상금액 및 보증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채권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대손충당금은 매입채권, 구상권, 회원권, 투자 기타 자산 등에 대한 충당금입니다.

◎이자반환손실충당금

| | | | | | | | | |
|---------------------|-------|-------|-------|-------|-------|-------|-------|-------|
| 이자반환손실충당금 | 8,145 | 7,593 | 7,388 | 6,833 | 6,463 | 6,555 | 6,222 | 6,308 |
| 할부결제금에 대한 이자반환손실충당금 | 9,304 | 8,544 | 7,723 | 6,605 | 6,065 | 5,686 | 5,591 | 0 |

◎채무보증손실충당금

| | | | | | | | | |
|--|--------|--------|--------|--------|--------|--------|--------|--------|
| 채무보증잔액 (c) ^{※1} | 33,983 | 34,814 | 36,050 | 40,839 | 42,795 | 44,373 | 45,725 | 36,712 |
| 그 중 무담보 | 16,293 | 16,506 | 16,853 | 21,007 | 22,055 | 22,718 | 23,272 | 13,890 |
| 그 중 유담보 | 17,689 | 18,308 | 19,196 | 19,832 | 20,740 | 21,654 | 22,452 | 22,821 |
| 채무보증손실충당금(d) | 524 | 497 | 457 | 441 | 431 | 453 | 447 | 422 |
| 채무보증잔액에 대한 충당률 (d)/(c) | 1.5% | 1.4% | 1.3% | 1.1% | 1.0% | 1.0% | 1.0% | 1.2% |
| 기타 자회사가 보유한 우발채무에 대한 충당금 ^{※2} | 3,513 | 3,578 | — | — | — | — | — | — |

※1 그 외, PT Bank Mutiara Tbk. 연결자회사 편입에 따라 2014.12기 및 2015.3의 은행업 보증채무는 7,014백만 엔입니다.

※2 기타 자회사가 부담하는 우발채무 충당금은 2013.12기 (주)정리회수기구에 대한 차입금 등의 완제에 따라 우발채무가 해소되었으므로 환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멘트

- 부실채권잔액에 대한 충당률은 2014.9기 친애저축은행의 부실채권처리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충당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향후의 흑자전환을 염두에 둔 일시적 요인으로 손실계상을 실시한 것이며 2014.12기에는 동일수준의 충당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기 인도네시아 무티아라는행이 연결자회사로 편입으로 되어 2015.3기부터 집계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부실채권잔액, 대손충당금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이자반환손실충당금은 최근 과납현황에 근거한 예상발생을 고려하여 충당하였으며 청구 건수, 과납금반환액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15.1 KC카드의 “KC카드” 브랜드 양도에 따라 할부결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이자반환손실충당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채무보증손실충당금은 할부결제금과 마찬가지로 KC카드의 “KC브랜드” 양도로 인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업무추진전략에 관한 변경은 없으며 채무보증기관을 확대하여 무담보대출 채무보증을 중심으로 잔액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유담보대출 채무보증의 잔액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률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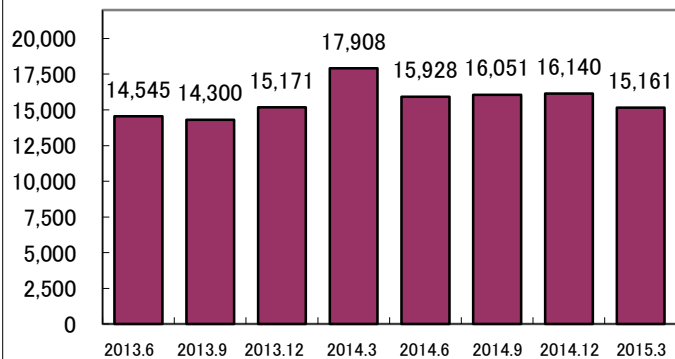
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 영업수익

단위:백만 엔

| | 2014.3기 | | | | | 2015.3기 | | | | |
|-------------|---------------|---------------|---------------|---------------|---------------|---------------|---------------|---------------|---------------|---------------|
| | 2013.6 | 2013.9 | 2013.12 | 2014.3 | 누계 | 2014.6 | 2014.9 | 2014.12 | 2015.3 | 누계 |
| 수취할인료 | 36 | 37 | 43 | 65 | 183 | 48 | 46 | 47 | 44 | 188 |
| 대출금 이자 | 892 | 788 | 680 | 693 | 3,054 | 3,043 | 937 | 549 | 404 | 4,934 |
| 매입채권회수액 | 616 | 677 | 762 | 961 | 3,018 | 710 | 701 | 1,128 | 898 | 3,439 |
| 할부결제수수료 | 2,046 | 1,923 | 1,833 | 1,659 | 7,463 | 1,622 | 1,548 | 1,491 | 38 | 4,701 |
| 보증료 수입 | 546 | 555 | 561 | 713 | 2,377 | 650 | 665 | 677 | 450 | 2,443 |
| 기타 금융수익 | 708 | 598 | 519 | 1,264 | 3,091 | 309 | 273 | 252 | 215 | 1,051 |
| 상각채권추심익 | 1,247 | 1,139 | 1,189 | 1,559 | 5,135 | 1,174 | 1,169 | 1,275 | 1,190 | 4,809 |
| 부동산사업매출액 | 703 | 1,326 | 1,835 | 1,103 | 4,970 | 1,846 | 1,626 | 1,287 | 1,061 | 5,821 |
| 어뮤즈먼트사업매출액 | 4,222 | 4,493 | 3,947 | 3,846 | 16,510 | 3,631 | 4,054 | 3,826 | 3,561 | 15,073 |
| 완공액(설계·시공) | 490 | 15 | 525 | 341 | 1,372 | 132 | 438 | 957 | 218 | 1,747 |
| 은행업 영업수익※ | 2,431 | 2,200 | 2,622 | 5,137 | 12,392 | 2,194 | 4,084 | 3,450 | 4,647 | 14,376 |
| 기타 | 601 | 542 | 650 | 561 | 2,356 | 564 | 503 | 1,196 | 2,428 | 4,693 |
| 영업수익 | 14,545 | 14,300 | 15,171 | 17,908 | 61,926 | 15,928 | 16,051 | 16,140 | 15,161 | 63,281 |

영업수익



코멘트

영업수익은 대체로 순조로운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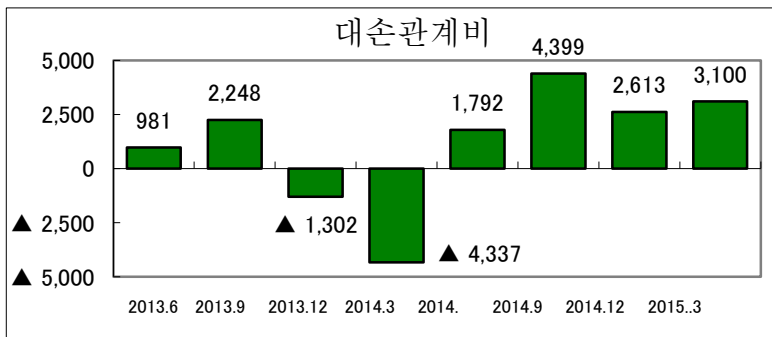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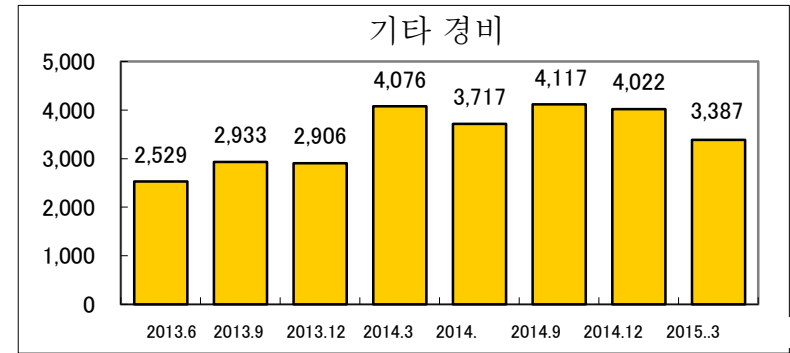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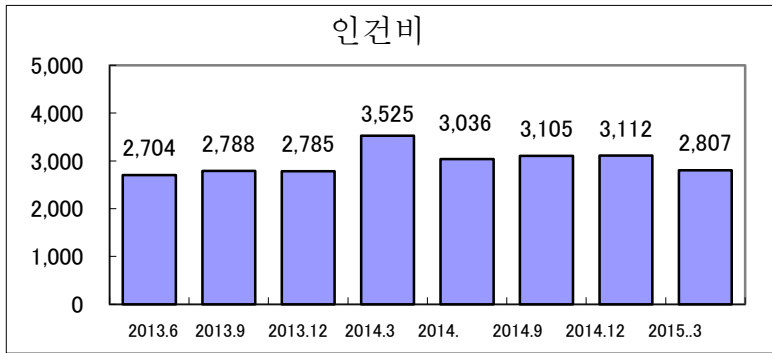
- ① **은행업 영업수익**은 친애저축은행의 채권 양수 및 신규대출 증가로 인한 잔액 증가와 JT저축은행의 자회사편입에 따라 **순조롭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4.3기는 연결대상기간 변경에 따라 회계기간이 3개월 가산되어 2014.9기는 계열금융회사 3사의 대출사업 양수로 인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② 2012.09기부터 어도어즈, 브레이크를 연결자회사 편입함에 따라 **어뮤즈먼트사업 매출액**은 순조로운 추이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소비세 인상과 무료 소셜게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③ **대출금 이자**는 2014.6기부터 한국 케이제이아이 및 하이캐피탈이 PL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2014.9기 친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사업 양도로 인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매입채권회수액**은 한국 사업회사 3사가 채권회수업무 개시함에 따라 2014.12기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료 수입**은 채무보증잔액 증가에 따라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었으나 KC카드의 신용보증사업 양도로 인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상각채권추심익**은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④ **할부결제수수료**는 현금서비스잔액의 지속적인 감소 추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KC카드의 카드사업양도로 인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⑤ **부동산사업매출액**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단위:백만 엔

| | 2014.3기 | | | | | 2015.3기 | | | | |
|-------------|---------|--------|---------|---------|---------|---------|--------|---------|--------|--------|
| | 2013.6 | 2013.9 | 2013.12 | 2014.3 | 누계 | 2014.6 | 2014.9 | 2014.12 | 2015.3 | 누계 |
| 인건비 | 2,704 | 2,788 | 2,785 | 3,525 | 11,804 | 3,036 | 3,105 | 3,112 | 2,807 | 12,062 |
| 기타 경비 | 2,529 | 2,933 | 2,906 | 4,076 | 12,446 | 3,717 | 4,117 | 4,022 | 3,387 | 15,245 |
| 대손관계비 | 981 | 2,248 | ▲ 1,302 | ▲ 4,337 | ▲ 2,409 | 1,792 | 4,399 | 2,613 | 3,100 | 11,906 |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6,216 | 7,970 | 4,389 | 3,264 | 21,841 | 8,546 | 11,622 | 9,749 | 9,295 | 39,214 |



코멘트

(대손관계비)

• 일시적 요인으로 케이제이아이 및 하이캐피탈 자회사 편입 및 친애저축은행의 채권 양수 등에 따른 잔액증가 및 부실채권처리촉진에 따른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2015.3기 JT캐피탈 채권양수로 인한 잔액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4.3기에는 친애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방법을 대손실적률을 기초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것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타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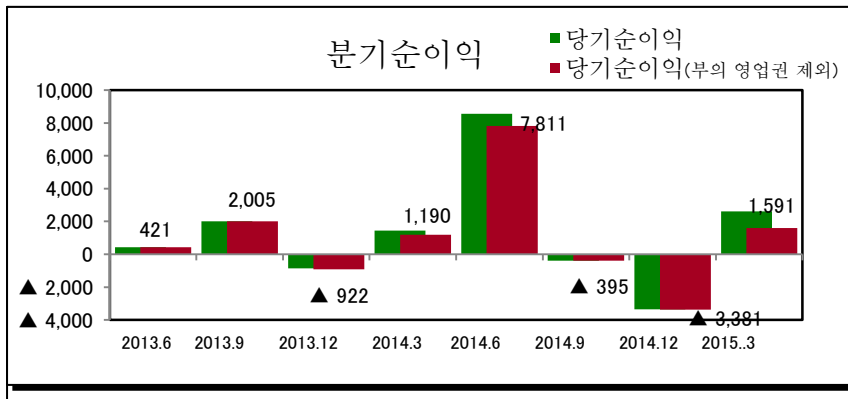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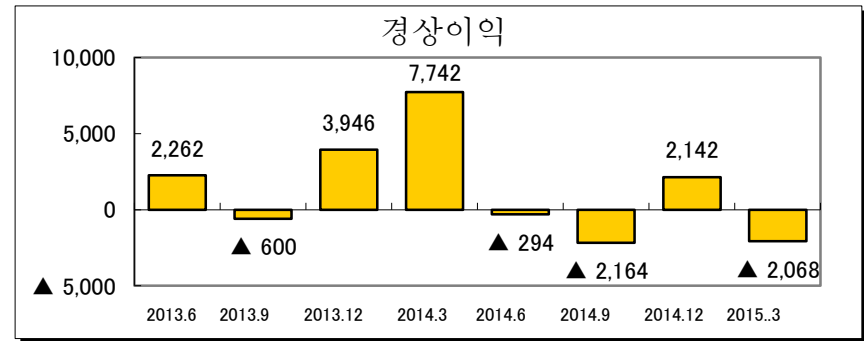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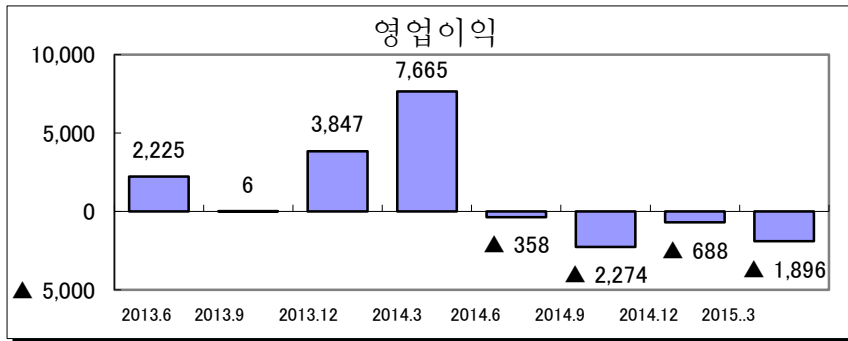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당사 그룹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기는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2014.3기는 연결대상기간 변경에 따라 친애저축은행, 일본보증에 각각 3개월 및 1개월 분기 가산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 분기 연결 실적

단위:백만 엔

| | 2014.3기 | | | | | 2015.3기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누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누계 |
| 영업이익 | 2,225 | 6 | 3,847 | 7,665 | 13,745 | ▲ 358 | ▲ 2,274 | ▲ 688 | ▲ 1,896 | ▲ 5,217 |
| 경상이익 | 2,262 | ▲ 600 | 3,946 | 7,742 | 13,351 | ▲ 294 | ▲ 2,164 | 2,142 | ▲ 2,068 | ▲ 2,385 |
| 당기순이익 | 2,005 | ▲ 861 | 1,441 | 8,560 | 11,145 | ▲ 395 | ▲ 3,359 | 2,611 | 11,286 | 10,143 |
| 부의 영업권 발생익 | — | 60 | 251 | 748 | 1,060 | — | 22 | 1,020 | 13,530 | 14,573 |
| 상기를 제외한 당기순이익 | 2,005 | ▲ 922 | 1,190 | 7,811 | 10,085 | ▲ 395 | ▲ 3,381 | 1,591 | ▲ 2,244 | ▲ 4,429 |



코멘트

4분기는 회계기간에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분기순이익은 지난 3분기에 이어 플러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수익**은 할부결제금수수료, 어뮤즈먼트사업 매출액감소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대출금이자와 은행업 영업수익, 당기에 신규로 연결된 개호사업을 비롯한 사업수익 등이 가산된 결과 **플러스**를 기록하였습니다.
- **영업손익**은 신규연결회사의 매출원가를 가산하였고 2분기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준이나 한국사업의 대손충당금전입액 계상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 또한 **경상이익**도 해외사업 추진으로 인해 증가했던 환차익 감소하였고 영업손실의 영향도 있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 한편 **분기순이익**은 일본보증의 사업구조개선비용 계상과 당사 그룹의 법인세 등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JT캐피탈과 JT저축은행 등의 주식 취득에 따라 양사의 주식취득 시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평가한 결과 시가순자산액이 취득가액을 상회하여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이 대폭 증가하여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며 **당해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01.4억 엔**입니다.

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

■ 과납금반환청구에 따른 현금지출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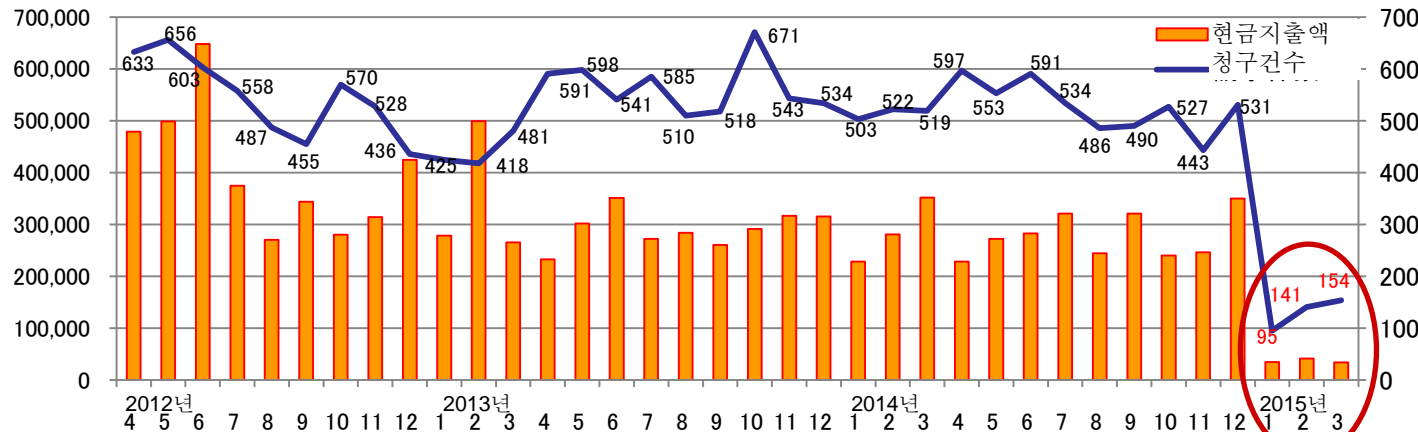
단위: 건, 천엔

| | 2012.4 | 2012.5 | 2012.6 | 2012.7 | 2012.8 | 2012.9 | 2012.10 | 2012.11 | 2012.12 | 2013.1 | 2013.2 | 2013.3 |
|--------|---------|---------|---------|---------|---------|---------|---------|---------|---------|---------|---------|---------|
| 청구 건수 | 633 | 656 | 603 | 558 | 487 | 455 | 570 | 528 | 436 | 425 | 418 | 481 |
| 전년동월대비 | 40.7% | 83.8% | 36.7% | 73.3% | ▲38.6% | ▲40.3% | ▲25.7% | ▲27.5% | ▲27.6% | ▲21.6% | ▲34.6% | ▲14.3% |
| 현금지출액 | 479,082 | 498,907 | 648,290 | 375,019 | 270,622 | 343,812 | 280,099 | 314,408 | 424,735 | 278,221 | 499,200 | 265,434 |

| | 2013.4 | 2013.5 | 2013.6 | 2013.7 | 2013.8 | 2013.9 | 2013.10 | 2013.11 | 2013.12 | 2014.1 | 2014.2 | 2014.3 |
|--------|---------|---------|---------|---------|---------|---------|---------|---------|---------|---------|---------|---------|
| 청구 건수 | 591 | 598 | 541 | 585 | 510 | 518 | 671 | 543 | 534 | 503 | 522 | 519 |
| 전년동월대비 | ▲6.6% | ▲8.8% | ▲10.3% | 4.8% | 4.7% | 13.8% | 17.7% | 2.8% | 22.5% | 18.4% | 24.9% | 7.9% |
| 현금지출액 | 232,533 | 301,858 | 351,328 | 272,207 | 283,809 | 260,768 | 291,590 | 316,592 | 315,596 | 228,321 | 280,992 | 351,843 |

| | 2014.4 | 2014.5 | 2014.6 | 2014.7 | 2014.8 | 2014.9 | 2014.10 | 2014.11 | 2014.12 | H27.1 | H27.2 | 2015.3 |
|--------|---------|---------|---------|---------|---------|---------|---------|---------|---------|--------|--------|--------|
| 청구 건수 | 597 | 553 | 591 | 534 | 486 | 490 | 527 | 443 | 531 | 95 | 141 | 154 |
| 전년동월대비 | 1.0% | ▲7.5% | 9.2% | ▲8.7% | ▲4.7% | ▲5.4% | ▲21.5% | ▲18.4% | ▲0.6% | ▲81.1% | ▲73.0% | ▲70.3% |
| 현금지출액 | 228,222 | 272,040 | 282,802 | 321,240 | 244,395 | 321,177 | 239,935 | 246,365 | 350,234 | 34,950 | 41,330 | 34,083 |

이자반환청구 건수 및 이자반환금(현금지출액)추이



코멘트

·과납금반환청구는 과납금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가 지방의 완제고객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있어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하나

·당사 그룹은 2015년 1월 KC카드 일부사업을 양도한 결과 과납금채권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납금청구건수, 현금지출액도 대폭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는 과납금청구 동향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당사 그룹은 2015년 1월 5일부로 KC카드의 “KC카드”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을 흡수분할을 통해 신규회사에 승계하고 당해 주식 전량의 양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에는 과납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참고자료로 KC카드를 제외한 과납금 반환청구에 따른 현금지출액 등의 최근 1년간 추이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 | 2014.1 | 2014.2 | 2014.3 | 2014.4 | 2014.5 | 2014.6 | 2014.7 | 2014.8 | 2014.9 | 2014.10 | 2014.11 | 2014.12 |
|-------|--------|--------|--------|--------|--------|--------|--------|--------|--------|---------|---------|---------|
| 청구 건수 | 134 | 160 | 149 | 152 | 157 | 167 | 166 | 144 | 155 | 145 | 163 | 154 |
| 현금지출액 | 51,430 | 55,074 | 57,936 | 55,306 | 53,312 | 51,052 | 50,763 | 30,579 | 52,209 | 55,417 | 30,096 | 41,916 |

(참고 1)

2015년 3월기 개별 결산 개요

2015년 3월기 개별 결산 개요

■ 실적(누계) 전기 대비






단위:백만 엔

| | 2014년 3월 (누계) | | 2015년 3월 (누계) | | 전기 대비 증감 | 증감률 (%) | 주요 증감요인 | |
|-------|------------------|------------|------------------|------------|----------------|------------|---------|---|
| | 실적 | 백분율 (%) | 실적 | 백분율 (%) | | | | |
| 영업수익 | 4,583 | 100.0 | 4,223 | 100.0 | ▲ 359 | ▲ 7.8 | 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회사대출금 감소로 인해 자회사가 지급하는 <u>수취배당금 감소</u> ·<u>기타 금융수익</u>이 (대상의 매입채권이 당기 중에 완제되어) 전기 대비 <u>감소</u>(당기, 0) |
| 영업비용 | 797 | 17.4 | 447 | 10.6 | ▲ 350 | ▲ 43.9 | 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차입금이자</u>가 전기((주)정리회수기구에 대한 지급 있음, 전기 중에 완제) 대비 <u>감소</u> |
| 영업총이익 | 3,785 | 82.6 | 3,776 | 89.4 | ▲ 9 | ▲ 0.2 | | |
| 판매관리비 | 1,953 | 42.6 | 1,729 | 40.9 | ▲ 224 | ▲ 11.5 | 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원수 감소에 따른 <u>급여 및 수당 감소</u> |
| 영업이익 | 1,832 | 40.0 | 2,047 | 48.5 | 214 | 11.7 | | |
| 경상이익 | 828 | 18.1 | 4,770 | 112.9 | 3,941 | 476.0 | 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주식교부비</u>가 전기(신주할당에 관련된 비용 계상 있음) 대비 <u>감소</u>(당기, 0)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u>환차익 계상</u> |
| 당기순이익 | 1,268 | 27.7 | 4,990 | 118.1 | 3,721 | 293.4 | 증 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경상이익 증가</u> ·<u>투자유가증권매각이익 감소</u> |

(참고2)
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일본 국내 금융사업 (P/L누계)

단위: 백만 엔

| | | | 2014.3 | 2015.3 | 전기대비 증감 |
|--|---|------|--------|--------|------------|
|  日本保証 | 주식회사 일본보증 | 영업수익 | 12,219 | 9,951 | ▲2,268 |
| | | 영업이익 | 4,407 | 2,364 | ▲2,042 |
|  | 파르티르 채권회수 주식회사 | 영업수익 | 1,296 | 1,394 | 97 |
| | | 영업이익 | 142 | 173 | 31 |
|  J TRUST Card |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 ※구, KC카드 주식회사 실적은 KC카드를 포함 | 영업수익 | 9,552 | 6,288 | ▲3,263 |
| | | 영업이익 | 3,382 | ▲964 | ▲4,347 |
|  | 주식회사 크레디아 | 영업수익 | 1,080 | 783 | ▲296 |
| | | 영업이익 | ▲537 | 121 | 658 |
|  NUCS | 주식회사NUCS | 영업수익 | - | 172 | - |
| | | 영업이익 | - | 10 | - |

(주)NUCS는 당기 1분기부터 PL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전기와의 비교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보증은 2014.1에 결산월을 2월에서 3월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4.3기의 결산 기간은 13개월입니다.

부동산사업 (P/L누계)

단위: 백만 엔

| | | | 2014.3 | 2015.3 | 전기대비 증감 |
|---|----------|------|--------|--------|------------|
|  | 키노트 주식회사 | 영업수익 | 4,620 | 5,767 | 1,146 |
| | | 영업이익 | 216 | 248 | 31 |

어뮤즈먼트사업 (P/L누계)







단위: 백만 엔

| | | | 2014.3 | 2015.3 | 전기대비 증감 |
|---|-----------|------|--------|--------|------------|
|  | 어도어즈 주식회사 | 영업수익 | 16,632 | 15,387 | ▲ 1,244 |
| | | 영업이익 | 961 | 441 | ▲ 519 |
|  | 주식회사 브레이크 | 영업수익 | 2,739 | 2,775 | 36 |
| | | 영업이익 | 105 | 46 | ▲ 58 |

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 해외사업

해외사업 (P/L누계)

단위: 백만 엔

| | | | 2014.3 | 2015.3 | 전기 대비 증감 | (참고) 분기별 영업이익 연결조정 후(상단: 누계, 하단: 분기) | | | |
|--|-------------------------------------|------|--------|--------|----------|---|--------|---------|--------|
| | | | | | | 2014.6 | 2014.9 | 2014.12 | 2015.3 |
|  친애저축은행 |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 영업수익 | 12,392 | 13,614 | 1,221 | ▲1,908 | ▲3,466 | ▲3,799 | ▲5,905 |
| | | 영업이익 | 2,944 | ▲6,070 | ▲9,015 | | ▲1,558 | ▲332 | ▲2,105 |
|  JT저축은행 | JT저축은행 | 영업수익 | - | 589 | - | - | - | - | ▲4 |
| | | 영업이익 | - | 352 | - | | - | - | - |
|  NEOLINE CREDIT |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 영업수익 | 818 | 376 | ▲442 | 610 | 186 | ▲431 | ▲387 |
| | | 영업이익 | 187 | ▲130 | ▲317 | | | | |
|  TA Asset 타에이자산관리대부 | TA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구,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 영업수익 | - | 2,858 | - | | ▲423 | ▲618 | 44 |
| | | 영업이익 | - | 292 | - | | | | |
|  HICAPITAL |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 | 영업수익 | - | 1,355 | - | | | | |
| | | 영업이익 | - | 336 | - | | | | |
|  J TRUST ASIA | J TRUST ASIA PTE.LTD. | 영업수익 | 3 | 1,058 | 1,055 | ▲21 | ▲39 | ▲67 | 643 |
| | | 영업이익 | ▲21 | 643 | 664 | | ▲17 | ▲28 | 710 |

(注1)TA자산관리대부, 하이캐피탈대부는 당기 1분기부터, JT저축은행은 당기 4분기부터 PL연결대상에 포함하였으므로 전기와의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J TRUST ASIA의 2014.3기는 12월 재무제표의 1~3월 중요 거래에 대하여 연결 상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3기는 가결산에 따른 재무제표에서 결산수치에 기초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 기간은 15개월입니다.

(注2) 엔화 환산금액은 상대국 통화 기준으로 작성한 월차P/L을 월평균 환율로 환산한 금액의 누계입니다.

| 월평균 환율(AR) | 2014년 3월기 | | | | | | 2015년 3월기 | | | | | |
|--|-----------|--------|--------|--------|--------|--------|-----------|--------|--------|--------|--------|--------|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 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TA자산관리대부, 하이캐피탈대부, JT저축은행(1KRW) | 0.0871 | 0.0909 | 0.0862 | 0.0886 | 0.0878 | 0.0915 | 0.0984 | 0.0996 | 0.1003 | 0.0999 | 0.1007 | 0.1038 |
| | 0.0919 | 0.0943 | 0.0981 | 0.0976 | 0.0956 | 0.0957 | 0.1021 | 0.1060 | 0.1082 | 0.1090 | 0.1081 | 0.1084 |
| J TRUST ASIA (1SGD) | - | - | - | - | - | - | 81.74 | 81.37 | 81.56 | 81.83 | 82.48 | 84.78 |
| | 78.77 | 80.16 | 82.20 | 81.68 | 80.68 | 80.71 | 84.82 | 89.48 | 90.81 | 88.57 | 87.55 | 87.47 |

기타사업 (P/L누계)

단위: 백만 엔

| | | | 2014.3 | 2015.3 | 전기대비 증감 |
|---|-----------------------------|------|--------|--------|------------|
|  | J트러스트 시스템 주식회사 | 영업수익 | 864 | 653 | ▲ 210 |
| | | 영업이익 | ▲ 48 | ▲ 24 | 23 |
|  | 주식회사 에이에이디 ※2014년 12월 매각 | 영업수익 | 861 | 601 | ▲ 260 |
| | | 영업이익 | 41 | 24 | ▲ 17 |
|  | 아이전자 주식회사 | 영업수익 | - | 887 | - |
| | | 영업이익 | - | ▲ 53 | - |
|  | 주식회사 일본개호복지그룹 | 영업수익 | - | 669 | - |
| | | 영업이익 | - | ▲ 48 | - |

(주) 아이전자, 일본개호복지그룹은 당기 4분기부터 PL연결대상에 포함하였으므로 전기와의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당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신중히 작성되었으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이나 정보에 의해 발생한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의견이나 예측 등의 정보는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의 당사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잠재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제 실적과 기재된 전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 및 당사 IR에 관한 문의 】

J트러스트 주식회사 홍보·IR부

TEL (03) 4330-9100

URL: <http://www.JT-corp.co.jp/>